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

여의도 4배 면적 생산거점 확보... “美 모빌리티 시장 선도”

한미 정관계 인사들 준공식 참석
美 연산 100만대 생산체제 구축
정의선 회장 “미래 함께 열어갈 것”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6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준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25%)를 발표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 통합 스마트팩토리를 완공했다.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대거 반영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으로 미국 모빌리티 시장을 이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차그룹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지은 ‘HMGMA’ 공장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곳은 이틀 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밝힌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핵심 거점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현대차그룹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했다.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과 버디 카터 연방 하원 의원, 앙헬 카브레라 조지아공대 총장, 조현동 주미 대사 등 한미 정관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첫 생산기지로 2005년 준공한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HMMA), 2009년 가동을 시작한 기아 조지아 공장(KaGA)에 이어 16년 만에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을 새롭게 추가했다.

HMGMA 전체 부지 면적은 1176만 m²(약 355만 평)로 여의도의 약 4배에 달하며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 GICS)에서 실증 개발한 최첨단 제조

혁신 플랫폼을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벌, 현대제철,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로템 등 주요 계열사의 미래 비전과 첨단 제조기술 역량이 총망라돼 있다. 부지 내에는 ‘프레스-차체-도장-의장라인’으로 이어지는 완성차 생산공장뿐 아니라 차량 핵심부품 계열사 및 배터리셀 합작 공장도 함께 들어섰다.

HMGMA는 지난해 10월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아이오닉5 생산을 시작했으며, 올해 3월에는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 양산에 돌입했다. 내년에는 기아 모델도 추가 생산 예정이며, 향후 제네시스 차량으로 생산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혼류(1개 생산 라인에서 2개 이상 차량 생산) 생산 체제를 통해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종도 내년에 추가 투입함으로써 미국 시장 소비자들의 다양한 친환경차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아이오닉 5가 생산되는 모습. /현대차그룹

HMGMA는 최신 자동화·인공지능(AI)·IT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 전 과정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운영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으로 구

현됐다. 정의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HMGMA는 혁신적 제조 역량 이상의 더 중요한 가치를 의미한다”며 “우리가 주목하

는 것은 모빌리티의 미래이며, 바로 이곳에서 그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HMGMA 준공으로 현대차그룹은 HMMA, KaGA와 함께 미국 내 연 1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향후 조지아 HMGMA에 20만대를 증설해 연 120만대 규모로 미국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자동차 판매량은 2000년 40만대 수준이었지만, 현지 공장 설립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앨라배마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06년 75만대, 기아 조지아 공장 준공 이듬해인 2011년에는 113만대로 판매가 급증했다. 2024년에는 171만대를 판매하며, 국내(125만대)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부 “車산업 비상대책 마련”

안덕근 장관, 민관합동 긴급 회의 개최
美 정부 적극 협력... 5월 중 대책 발표

우리나라 수출 효자품목인 자동차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정부와 업계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한 비상대응 방안을 내달 중 마련해 발표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현대차, 기아차, 만도, 현대모비스, 인פק, 자동차협회, 자동차 부품조합 등 업계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연구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5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달 발표할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에는 내수 판매 확대나 제3국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자동차 수출지역 다변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정부는 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방안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우리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국 정부와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세종=한용수기자 hys@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금융을 잘 안다
보험을 잘 안다

그래서
KB손해보험이다

보험도 결국 금융이니까!
금융을 잘 아는 KB가 보험도 잘 합니다
알면 알수록 보험은 KB손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펫보험
 여행자보험

임보험
 지너보험·태야보험

KB 손해보험